

2017년 6월 17일 시행 / 지방직 9급 필기시험

한국사 기출해설 (B책형)

해설 : 전한길 교수

1. 한반도 선사시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구석기시대 전기에는 주먹도끼와 스펀지돌 등이 사용되었다.
- ② 신석기시대 집터는 대부분 움집으로 바닥은 원형이나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이다.
- ③ 신석기시대 사람들은 조개류를 많이 먹었으며, 때로는 장식으로도 이용하기도 하였다.
- ④ 청동기시대의 전형적인 유물로는 비파형동검·붉은간토기·반달돌칼·흙자귀 등이 있다.

1. 정답 ①

해설 한반도 선사시대에 대한 문제로서 구석기시대 전기에는 주먹도끼와 찌개 등이 사용되었다.

① 스펀지돌은 작고 빠른 침습을 잡기 위한 도구로 주로 창 의 기능을 하였으며 구석기 전기가 아니라 구석기 후기에 사용된 도구이다.

2. 다음 자료를 쓴 역사가의 활동으로 옳은 것은?

역사란 무엇이뇨. 인류 사회의 아와 비아의 투쟁이 시간부터 발전하며 공간부터 확대하는 심적 활동의 상태의 기록이니, 세계사라 하면 세계 인류의 그리되어 온 상태의 기록이며, 조선사라 하면 조선 민족의 그리되어 온 상태의 기록이니라.

- ① 『여유당전서』를 발간하여 조선후기 실학자들을 재평가하였다.
- ② 을지문덕, 최영, 이순신 등 애국명장의 전기를 써서 애국심을 고취하였다.
- ③ 『조선사회경제사』를 저술하여 세계사적 보편성 속에서 한국사를 해석하였다.
- ④ '5천 년간 조선의 얼'이라는 글을 동아일보에 연재하여 민족정신을 고취하였다.

2. 정답 ②

해설 일제 강점기 역사학자를 묻는 문제로 제시문은 신채호의 '조선상고사'에 대한 설명이며, 그는 을지문덕전, 최도통전[최영], 이순신전 등의 영웅 전기를 써서 애국심을 고취하였다. ① '여유당전서'를 발간한 것은 1930년대 정인보, 문일평, 안재홍 등이며, ③ '조선사회경제사'를 저술한 것은 백남운, ④ '5천 년간 조선의 얼'을 쓴 것은 정인보이다.

3. 군사제도가 실시된 시기 순으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중앙	지방
ㄱ	9서당	10정
ㄴ	5위	진관체제
ㄷ	5군영	속오군
ㄹ	2군과 6위	주현군과 주진군

- ① ㄱ → ㄴ → ㄷ → ㄹ
- ② ㄱ → ㄹ → ㄴ → ㄷ
- ③ ㄴ → ㄱ → ㄷ → ㄹ
- ④ ㄴ → ㄹ → ㄱ → ㄷ

3. 정답 ②

해설 각 시대별 군사제도의 변천사를 묻는 문제로서 9서당 10정은 통일신라, 5위와 진관체제는 조선전기, 5군영과 속오군은 조선후기, 2군 6위와 주현군과 주진군은 고려시대이다.

4. (가), (나)의 특징을 가진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가) 옷은 흰색을 숭상하며, 흰 베로 만든 큰 소매 달린 도포와 바지를 입고 가죽신을 신는다.

(나) 부여의 별종(別種)이라 하는데, 말이나 풍속 따위는 부여와 많이 같지만 기질이나 옷차림이 다르다.

- 『삼국지』 위서동이전 -

- ① (가) - 혼인풍속으로 민며느리제가 있었다.
- ② (나) - 제사장인 천군이 다스리는 소도가 있었다.
- ③ (가) - 남의 물건을 훔쳤을 때는 12배로 배상하게 하였다.
- ④ (나) - 단궁이라는 활과 과하마·반어피 등이 유명하였다.

4. 정답 ③

해설 초기 여러나라에 대한 것을 묻는 문제이다. 제시문의 (가)는 부여, (나)는 부여의 별종이고 부여와 풍습이 비슷한 나라는 고구려이다. 부여 사람 주몽이 고구려를 세웠고, 1책12법, 형사취수제 등의 풍습은 부여와 고구려의 공통된 풍습이다. ① 민며느리제는 옥저의 풍습이며, ② 천

군과 소도는 제정 분리의 삼한의 특징, ③ 1책 12법은 부여와 고구려의 형법이고, ④ 단궁, 과하마, 반어피는 동예의 특산물이다.

5. 다음 글을 지은 사람들의 공통점으로 옳은 것은?

- (가) 낭혜화상백월보광탑비문(朗慧和尚白月葆光塔碑文)
(나) 대견훤기고려왕서(代甄萱寄高麗王書)
(다) 낭원대사오진탑비명(郎圓大師悟眞塔碑銘)

- ① 골품제를 비판하고 호족 억압을 주장하였다.
- ② 국립 교육기관인 태학(太學)에서 공부하였다.
- ③ 신라뿐만 아니라 고려왕조에서도 벼슬하였다.
- ④ 당나라에 유학하여 빈공과(賓貢科)에 급제하였다.

5. 정답 ④

해설 주어진 자료가 모두 처음 출제된 이번 시험에서 가장 어렵게 느껴졌던 문제이다. 즉, 주어진 자료는 통일신라 하대에 활동한 6두품 유학자를 묻는 문제로 각각, (가)는 최치원의 4산 비문 중의 하나이고, (나)는 견훤의 책사였던 최승우가 견훤을 대신해서 고려왕에게 보낸 서신이며, (다)는 왕건의 책사였던 최언위가 쓴 글이다. 이들의 공통점은 모두 신라하대 6두품 출신의 도당 유학생으로 당나라 빈공과에 급제하였다. 흔히, 신라의 ‘3최’라고 불리었다.(필기노트 P.28)

① 신라 하대의 6두품은 골품제를 비판하고 반신라화 되어 호족과 결탁하였다. ② 태학은 고구려의 교육기관이며, ③ 최치원은 신라 하대 진성여왕 때 활약하였으며, 최승우는 견훤의 책사였고, 최언위만이 고려왕조에서 벼슬을 하였다.

6. 다음 밑줄 친 ‘대사’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 엔닌은 대사의 어진 덕을 입었기에 삼가 우러러 뵈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는 이미 뜻한 바를 이루기 위해 당나라에 머물러 왔습니다. 부족한 이 사람은 다행히도 대사께서 발원하신 적산원(赤山院)에 머물 수 있었던 것에 대해 감경(感慶)한 마음을 달리 비교해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 『입당구법순례행기』 -

- ① 법화원을 건립하고 이를 지원하였다.
- ② 당나라에 가서 서주 무령군 소장이 되었다.
- ③ 회역사, 전당매물사 등의 교역 사절을 파견하였다.

④ 웅주를 근거지로 반란을 일으켜 장안(長安)이라는 나라를 세웠다.

6. 정답 ④

해설 제시문은 장보고의 도움으로 당나라를 순례한 일본 승려 엔닌의 청해진대사 장보고에 대한 설명이다. 장보고는 완도 출신으로 당나라에 건너가서 고위 군인으로 출세하였으며 신라로 돌아와서 청해진을 설치하고 해적을 소탕하고 회역사, 건당매물사 등의 교역 사절을 파견하는 등 무역을 통한 해상왕이 되었다. 그리고 그는 당나라 산둥반도에는 법화원이라는 사원까지 건립하였다.(필기노트 P.21, P.25) ④ 웅주(웅천주)를 근거지로 반란을 일으키고 국호를 장안, 연호를 경운이라 한 것은 헌덕왕 때의 김헌창의 난을 일으킨 김헌창에 대한 설명이다.

7. 다음 (가)에서 이루어진 합의제도를 시행한 국가의 통치체제로 옳은 것은?

호암사에는 (가)(이)라는 바위가 있다. 나라에서 장차 재상을 뽑을 때에 후보 3, 4명의 이름을 써서 상자에 넣고 봉해 바위 위에 두었다가 얼마 후에 가지고 와서 열어보고 그 이름 위에 도장이 찍혀 있는 사람을 재상으로 삼았다.

- 『삼국유사』 -

- ㄱ. 중앙정치는 대대로를 비롯하여 10여 등급의 관리들이 나누어 맡았다.
- ㄴ. 중앙관청을 22개로 확대하고 수도는 5부, 지방은 5방으로 정비하였다.
- ㄷ. 16품의 관등제를 시행하고, 품계에 따라 옷의 색을 구별하여 입도록 하였다.
- ㄹ. 지방 행정 조직을 9주 5소경 체제로 정비하였다.
- ㅁ. 중앙에 3성 6부를 두고, 정당성을 관장하는 대내상이 국정을 총괄하도록 하였다.

- ① ㄱ, ㄴ
- ② ㄴ, ㄷ
- ③ ㄷ, ㄹ
- ④ ㄹ, ㅁ

7. 정답 ②

해설 제시문은 백제의 귀족회의인 '정사암회의'에 대한 설명이다. 대대로를 비롯하여 10여 관등을 설치한 것은 고구려, 중앙조직을 22부로 확대하고 5부, 5방 체제를 정비한 것은 백제 성왕 때, 16관등제와 함께 3색 공복을 정비한 것은 백제 고이왕 때, 9주 5소경체제를 정비한 것은

통일신라 신문왕, 중양에 3성 6부를 두고 정당성을 관장하는 대내상이 국정을 총괄한 것은 발해이다.

8. 다음 글을 쓴 사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오늘날 백성을 다스리는 자는 백성에게서 건어들이는 데만 급급하고 백성을 부양하는 방법은 알지 못한다. …… ‘심서(心書)’라고 이름 붙인 까닭은 무엇인가? 백성을 다스릴 마음은 있지만 몸소 실행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이름 붙인 것이다.

- ①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지전설을 주장하였다.
- ② 『농가집성』을 펴내 이양법 보급에 공헌하였다.
- ③ 홍역 관련 의서를 종합해 『마과회통』을 저술하였다.
- ④ 조선시대의 역사를 서술한 『열조통기』를 편찬하였다.

8. 정답 ③

해설 조선후기 학자와 저서를 묻는 문제로서 제시문은 정약용의 ‘목민심서’에 대한 설명이다.

- ①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지전설을 주장한 것은 김석문, ② ‘농가집성’을 지은 것은 신숙, ③ ‘마과회통’을 지은 것은 정약용, ④ ‘열조통기’를 지은 것은 안정복이다.(필기노트 P.87, 88, 89)

9. (가)와 (나)의 인물에 대한 <보기>의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가)는 “교(敎)를 배우는 이는 대개 안의 마음을 버리고 외면에서 구하고, 선(禪)을 익히는 이는 인연을 잊고 안의 마음을 밝히기를 좋아하니, 모두 한쪽에 치우친 것으로 두 극단에 모두 막힌 것이다.”라고 주장하였다.

(나)는 “정(定)은 본체이고 혜(慧)는 작용이다. 작용은 본체를 바탕으로 존재하므로 혜가 정을 떠나지 않고, 본체가 작용을 가져오게 하므로 정은 혜를 떠나지 않는다.”라고 주장하였다.

— <보 기> —

- ㄱ. (가)와 (나)는 서로 다른 방법으로 교종과 선종의 통합을 시도하였다.
- ㄴ. (가)와 (나)는 지방 호족과 연합하여 신라 정부의 권위를 약화시켰다.
- ㄷ. (가)는 불교와 유교 모두 도를 추구한다는 점에서 같다는 유·불 일치설을 주장하였다.

ㄱ. (나)는 수선사 결성을 제창하여 불교계의 개혁을 추진하였다.

- ① ㄱ, ㄴ
- ② ㄱ, ㄷ
- ③ ㄴ, ㄷ
- ④ ㄴ, ㄹ

9. 정답 ②

해설 고려시대 승려의 인물사를 비교하는 문제로서 제시문의 (가)는 의천, (나)는 지눌에 대한 설명이다. 이들의 공통점은 각각 다른 방법으로 교종과 선종의 통합을 시도하였으며, 지눌은 수선사결사운동을 펼쳤으며, 유·불 일치설을 주장한 것은 의천이 아니라 혜심이다.

10. 다음 상황이 나타난 시기에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옳은 것은?

대외 무역이 발전하면서 예성강 어귀의 벽란도가 국제 무역항으로 번성했으며, 대식국(大食國)으로 불리던 아라비아 상인들도 들어와 수은·향료·산호 등을 팔았다.

- ① 해동통보와 은병(銀瓶) 같은 화폐를 만들어 사용하였다.
- ② 인구·토지면적 등을 기록한 장적(帳籍, 촌락문서)이 작성되었다.
- ③ 개성의 송상은 전국에 송방(松房)이라는 지점을 개설해서 활동하였다.
- ④ 지방 장시의 객주와 여각은 상품의 매매뿐 아니라 숙박·창고·운송 업무까지 운영하였다.

10. 정답 ①

해설 제시문에서 ‘벽란도’와 ‘대식국인’과의 교역 등을 통해서 고려시대의 경제활동임을 알 수가 있다. ① 고려 숙종 때 해동통보와 은병같은 화폐를 만들었다. ② 장적 즉, 촌락문서는 통일신라의 민정문서, ③ 개성의 송상의 활동은 조선후기, ④ 지방 장시의 객주와 여각의 활동은 조선후기이다.

11. 조선시대 도성 한양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경복궁 근정전의 이름은 정도전이 지었다.
- ② 경복궁의 동쪽에 사직이, 서쪽에 종묘가 각각 배치되었다.
- ③ 유교사상인 인·의·예·지 덕목을 담아 도성 4대문의 이름을 지었다.

④ 도성 밖 10리 안에는 개인의 무덤을 쓰거나 벌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제하였다.

11. 정답 ②

해설 조선시대 한양 도성과 궁궐에 대해서 문제이다. ① 경복궁과 4대문의 이름은 모두 정도전이 지은 것이며, ② 경복궁 동쪽에 종묘, 서쪽에 사직을 배치하였으며, ③ 한양의 4대문의 이름은 모두 정도전이 유교사상인 인·의·예·지의 덕목을 담아서 이름을 지었으며, ④ 도성 밖 10리 안에는 개인의 무덤을 쓰지 않도록 하였다. (필기노트 P.7 한양 도성 그림 참조)

12. 밑줄 친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국왕이 말했다. “나는 일찍부터 이 제도를 시행해 여러 해의 평균을 파악하고 답험(踏驗)의 폐단을 영원히 없애려고 해왔다. 신하들부터 백성까지 두루 물어보니 반대하는 사람은 적고 찬성하는 사람이 많았으므로 백성의 뜻도 알 수 있다.”

- ① 토지의 비옥도에 따라 조세를 차등 징수하였다.
- ② 풍흉에 상관없이 1결당 4~6두를 조세로 징수하였다.
- ③ 토지 소유자에게 1결당 미곡 12두를 조세로 징수하였다.
- ④ 토지 소유자에게 수확량의 10분의 1을 조세로 징수하였다.

12. 정답 ①

해설 조선시대 조세제도와 토지제도를 묻는 문제로 제시문은 세종이 17만호 백성들에게 직접 물어서 시행한 공법에 대한 설명이다. 공법에 의하면 연분9등법을 통해서 풍·흉에 따라서 조세를 9등급으로 차등하여 징수하였고, 전분6등법을 통해서 토지의 비옥도에 따라서 6등급으로 나누어서 조세를 차등하여 징수하였다. ② 풍흉에 상관없이 1결당 4~6두를 조세로 징수한 것은 인조 때 영정법, ③토지 소유자에게 1결당 12두를 징수한 것은 대동법, ④ 토지 소유자에게 수확량의 10분의 1을 조세로 징수한 것은 과전법이다.

13. 다음 지시에 따라 실시된 제도로 옳은 것은?

왕이 양역을 절반으로 줄이라고 명령했다. “..... 호포(戶布)나 결포(結布) 모두 문제가 있다. 이제 1필을 줄이는 것으로 온전히 돌아갈 것이니 경들은 1필을 줄였을 때 생기는 세입 감소분을 보충할 방법을 강구하라.”

- ① 지조법을 시행하고 호조로 재정을 일원화하였다.

- ② 토산물로 징수하던 공물을 쌀이나 무명, 동전 등으로 통일하였다.
- ③ 황폐해진 농지를 개간하도록 권장하고 전국적인 양전 사업을 시행하였다.
- ④ 일부 양반층에게 선무군관이라는 칭호를 주고 군포 1필을 납부하게 하였다.

13. 정답 ④

해설 제시문은 양역을 2필에서 1필로 절반을 줄인 영조의 균역법에 대한 설명이다. 이렇게 해서 줄어든 감소분을 보충할 방법으로 결작, 선무군관포를 징수하였고 균역청에서 어·염·선세의 잡세를 거두어서 충당하였다. ① 갑신정변 때 개혁정강에 포함된 것이며, ② 대동법에 대한 설명이며, ③ 균역법은 양전사업과는 관련이 없다.

14. 임진왜란의 전개 과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휴전협상이 진행되는 동안 조선은 훈련도감을 설치해 군대의 편제를 바꾸었다.
- ② 조선군은 명나라 지원군과 연합하여 일본군에게 뺏긴 평양성을 탈환하였다.
- ③ 전세가 불리해지고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죽자 일본군이 철수함으로써 전란이 끝났다.
- ④ 첨사 정발은 부산포에서, 도순변사 신립은 상주에서 일본군과 맞서 싸웠지만 패배하였다.

14. 정답 ④

해설 임진왜란의 전개 과정 중에서 틀린 것을 찾는 문제로 신립이 일본군을 맞아서 싸운 곳은 상주가 아니라 충주 탄금대전투이다.

15. 우리나라 족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조선후기에 부유한 농민들은 족보를 사거나 위조하기도 하였다.
- ② 조선초기의 족보는 친손과 외손을 구별하지 않고 모두 수록하였다.
- ③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족보는 성종 7년에 간행된 『문화류씨 가정보』이다.
- ④ 조선시대에는 족보가 배우자를 구하거나 봉당을 구별하는 데 중요한 자료로 활용되기도 하였다.

15. 정답 ③

해설 우리나라 족보에 대한 것을 묻는 문제로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족보는 ‘문화류씨가정보’가 아니라 ‘안동권씨성화보’이다. (필기노트 P.78)

16. 다음 (가)~(라)를 내용으로 하는 헌법이 적용되던 시기에 일어난 사건으로 바르게 연결한 것은?

- (가) 대통령의 임기는 7년이며 중임할 수 없다.
 (나) 대통령과 부통령은 국회에서 무기명 투표로 각각 선거한다.
 (다) 대통령과 부통령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1차 중임할 수 있다. 단, 이 헌법 공포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 중임 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라) 6년 임기의 대통령은 통일 주체 국민회의에서 선출된다.

- ① (가) - 남한과 북한은 함께 유엔에 가입하였다.
 ② (나) - 판문점에서 휴전 협정이 체결되었다.
 ③ (다) - 평화통일론을 주장한 진보당의 정당등록이 취소되었다.
 ④ (라) - 민족 통일을 위한 남북 공동 성명이 발표되었다.

16. 정답 ③

해설 현대사의 헌법 개정사를 묻는 문제이다. 제시문의 (가)는 8차 개헌 내용이며, (나)는 제헌 헌법내용이며, (다)는 2차 개헌 즉, 사사오입개헌이며, (라)는 7차 헌법인 유신헌법 내용이다. ① 남과 북이 함께 유엔에 가입한 것은 1991년 노태우정부 때이며, 이때는 1987년에 개헌된 9차 헌법이 적용되던 시기이다. ② 판문점에서 휴전 협정이 체결된 것은 1953년이므로 이때는 1952년에 개헌된 1차 개헌의 헌법이 적용되던 시기이다. ③ 진보당 사건은 1958년 이승만정부 때이므로 2차 헌법이 적용되던 시기이다. ④ 남북 공동 성명이 발표되었던 시기는 1972년 7월 4일이므로 그해 12월에 개헌된 7차 유신헌법이 적용되기 전이므로 6차 헌법이 적용되던 시기이다.

17. 다음 자료가 조선 조정에 소개된 이후에 일어난 사건으로 옳지 않은 것은?

러시아를 막을 수 있는 조선의 책략은 무엇인가? 중국과 친하고 [親中] 일본과 맺고 [結日] 미국과 연합해 [聯美] 자강을 도모하는 길 뿐이다.

- ① 육영공원(育英公院)을 설립해 서양의 새 학문을 교육했다.
 ② 임오군란이 일어나고 제물포조약이 체결되어 일본에 배상금을 지불하였다.
 ③ 개화파가 우정충국 개국 축하연을 이용해 정변을 일으켜 정권을 장악하였다.
 ④ 최익현은 일본과 통상을 반대하는 「오불가소(五不可疏)」를 올렸다.

17. 정답 ④

해설 제시문은 1880년 2차 수신사 김홍집이 유입한 황준센의 '조선책략'의 내용이다. ① 육영공원은 1886년 설립되었으며, ② 제물포조약은 1882년, ③ 갑신정변은 1884년, ④ 최익현의 '5불가소'는 강화도조약 반대 상소이므로 1876년이다.

18. 다음 자료에 나타난 사상을 정립한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우리나라의 건국정신은 삼균제도(三均制度)의 역사적 근거를 두었으니 선조들이 분명히 명한 바 「수미균평위(首尾均平位) 하야 흥방보태평(興邦保泰平)하리라」 하였다. 이는 사회 각종 각급의 지력과 권력과 부력의 향유를 균평하게 하여 국가를 진흥하며 태평을 보유(保維)하려 함이니 홍익인간(弘益人間)과 이화세계(理化世界)하자는 우리 민족의 지킬 바 최고 공리(公理)임

- ① 한국독립당을 창당하였다.
- ② 임시정부의 국무위원이었다.
- ③ 제헌 국회의원에 당선되었다.
- ④ 정치·경제·교육의 균등을 주장하였다.

18. 정답 ③

해설 조소앙의 인물사를 묻는 문제이다. 조소앙은 1935년 한국독립당을 창당하였으며(필기노트 P.117, P.118), 임시정부의 국무위원으로서 그가 제시한 정치·경제·교육의 균등을 담은 삼균주의는 1941년에 대한민국임시정부의 건국강령으로 채택되었다. 조소앙은 김구, 김규식과 함께 1948년에 남한 단독 선거를 반대하여 남북협상에 참여하였으며, 따라서 이들은 그해 실시된 5.10 총선에는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헌 국회의원에 당선될 수는 없었다.

19. 시대별 교육문화의 변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미군정기 : 미국식 민주주의 교육과 6-3-3학제가 도입되었다.
- ② 1950년대 :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초등학교 의무교육제가 시행되었다.
- ③ 1960년대 : 입시과열을 막기 위해 중학교 무시험 추첨제가 도입되었다.
- ④ 1970년대 : 국가주의 이념을 강조한 국민교육헌장이 제정되었다.

19. 정답 ④

해설 현대사의 시대별 교육문화의 변화에 대한 것 중에서 틀린 것을 찾는 문제로 ④ 국민교육헌장은 1970년대가 아니라 1968년에 제정되었다. (필기노트 P.132 그리고 P.136 참조)

20. 다음 법령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제1조 일본 정부와 통모하여 한·일 합병에 적극 협력한 자, 한

국의 주권을 침해하는 조약 또는 문서에 조인한 자와 모의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 징역에 처하고, 그 재산과 유산의 전부 혹은 2분의 1 이상을 몰수한다.

제2조 일본 정부로부터 작위를 받은 자 또는 일본 제국 의회의 의원이 되었던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그 재산과 유산의 전부 혹은 2분의 1 이상을 몰수한다.

제3조 일본 치하 독립운동자나 그 가족을 악의로 살상·박해한 자 또는 이를 지휘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그 재산의 전부 혹은 일부를 몰수한다.

- ① 이 법령에 따라 특별 재판부가 설치되었다.
- ② 이 법령의 제정은 제헌헌법에 명시된 사항이었다.
- ③ 이 법령에 따라 반민족행위자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 ④ 이 법령은 여수·순천 10·19 사건 직후에 국회에서 통과되었다.

20. 정답 ④

해설 제시문은 반민족 행위를 한 자들을 처벌하기 위해서 1948년 9월에 제정된 ‘반민법’에 대한 내용이다. 이 법에 따라서 반민특위와 특별 재판부가 설치되어서 실형 선고 받은 사람은 있었지만 처벌된 자는 한 명도 없었다. ④ 여수·순천 10·19 사건은 1948년 10월에 일어났고 그 직후에는 국가보안법이 제정되었으며 반민법은 이 사건 직전에 제정되었다.